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사장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화솔루션은 15일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사장이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사장의 지명을 받아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사장은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서울시청 내 시민 휴게 공간인 시민청 만남의 정원에 '친환경 플라워 아트월' 조성을 지원했다. 친환경 플라워 아트월에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유한킴벌리, 유해발굴지 산림생태복원 진행
유한킴벌리는 (사)생명의숲, 산림청, 21사단과 공동으로 강원도 양구군 백석산 일대 유해발굴지에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 산림청, 21사단은 이곳에 고로쇠, 물푸레나무 등 총 1700 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생태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판도 설치했다. 백석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 복원사업 준공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사단



BBQ,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 MOU 체결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 비비큐가 유엔해비타트(UN HABITAT) 한국위원회와 글로벌 사회공헌 및 청년 창업·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글로벌 사회공헌 및 청년창업과 인재육성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캠페인과 문화 협력 사업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 회장(오른쪽)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BQ



깨끗한나라, 마스크 나눔행사 진행
깨끗한나라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에 맞춰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깨끗한나라 임직원들은 분사 인근 한남동 버스 환승역과 공장이 자리한 청주 오송역에서 깨끗한나라 황사 방역용 KF94 마스크 1만8000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내용의 전단지 등을 출근길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깨끗한나라

교촌치킨, 가맹점 산재예방 안전용품 지원

헬멧·안전화 등 7300만원 상당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가맹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점 안전 용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촌은 가맹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헬멧, 안전화 등

총 730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전국 가맹점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안전용품은 가맹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물품으로 전국 가맹점에 개별 배송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A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을 앞둔 시점에,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총회에서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들 일부는 이러한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위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

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994 판결).

대법원은 조합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특히 임원의 보수나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 수행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하에,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임원이 조합에 대해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하고,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

되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당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에 관해는, 임원들의 업무수행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사업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총회 결의 이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대법원은, 위사건의 경우 원심이 임원들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심리할 수 있음에도, 인센티브가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는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위사건은 현재 원심 법원에 환송됐는데,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바른

CJ제일제당, 'DJSI 亞·泰 지수' 6년연속 편입

국내 식품업계 중 유일 등재
117개 과제평가 대부분 우수



CJ제일제당은 세계적인 권위를 갖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I) 평가에서,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6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지수에 편입됐다고 15일 밝혔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와 지속가능성 평가 전문기관 스위스 '샘'이 공동 개발한 글로벌 기업 평가 기준이다. 경제와 환경,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

투자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11개 기업 중 상위 25.5%에 포함되며 아-태 지수에 등재됐다. 국내 식품기업들 가운데 이 지수에 이름을 올린 것은 CJ제일제당이 유일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 받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임을 입증 받은 셈이다.

경제, 환경, 사회 등3개 분야, 27개

항목, 117개 세부과제 평가에서 대부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제보 채널 구축을 통한 '윤리경영' 실현 ▲투명한 정보 공개 ▲R&D 기반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 등 성과가 높게 평가 받았다.

CJ제일제당은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는 핵심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통 단계까지 위생관리에 힘쓰는 것은 물론, 해외 현지에 적합한 종자개발 및 보급, 선진 농업기술 전수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필하모닉 비대면 정기연주회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6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제5회 서울학생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 11시, 오후 2시 등 2회로 나눠 비대면으로 열린다. 창의예술교육기부팀 유튜브 공식 채널 '예술락낙낙knock'에서 랜선 공연으로 동시 진행된다.

정기연주회에서는 ▲주제의 경기병 서곡 ▲한태수 작곡의 아름다운 나라 ▲소프라노 서예은의 밀양아리랑이 연주된다. 또한, ▲르로이 앤더슨의 고장난 시계 ▲한스 짐머의 캐리비안의 해적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9번 4악장도 감상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hji@

인사

- ◆한화생명 ◇전무 승진 △김동원 전무 ◇상무보 승진 △김국진 △이경섭 △이원근 △최재덕
- ◆한화투자증권 ◇상무 승진 △김민수 ◇상무보 승진 △성기승 손종민 윤석훈
- ◆한화손해보험 ◇상무 승진 △우용호 △이재우 △임동일 ◇상무보 승진 △남준우 △서익준 △손두호 △신정훈 △이명수 △전두성 △정주교
- ◆동아프린테크 △총정리 공장장 조권희 △안산 공장장 마승중

부음

- ▲이봉이씨 별세,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장모상 = 15일, 경남 거제 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055-636-3112
- ▲신태균씨 별세, 신은미·신은정(국민일보 기자)·신은경(세원셀론텍 차장)·신동현(세이브에너지 근무)씨 부친상, 송경민·최현철(경향신문 차장)·송승건(ASML 차장)씨 장인상 = 15일 오전 7시12분,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31-780-6161

- ▲박흥수씨 별세, 이대용(전 무역보험공사 감사·공인회계사)씨 모친상, 윤영수(소설가)씨 시모상, 이수영(금융위원회 과장)·이수창(지유투자 이사)·이수민(광주지법 부장판사)씨 조모상, 김용현씨 처조모상, 박선주·신효정씨 시조모상 = 14일 오전 4시48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40분, 장지 경북 청도군 청도읍 선영, 02-3010-2000

- ▲성기운(성결대 교수)씨 별세, 이순영(김포 은여울중 교사)씨 남편상, 성문현(현대엔지니어링 사원)·성재현(극작가)씨 부친상 = 14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7일 오전 5시30분, 02-2072-2016

- ▲허동선씨 별세, 신중창·신중갑·신경숙씨 모친상, 신인규(한국경제TV 기자)씨 조모상 = 15일 오전 5시, 경남 거창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장지 경남 거창군 선영, 055-944-4444

- ▲김정(전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씨 별세, 김경진씨 남편상, 김영주·선주씨 부친상=13일 23시5분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10시, 02-3779-1526